

회원님들의 최근 활동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2006년도 상수도 보급률 91.3%



환경부가 165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2006 상수도통계」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급수인구는 4,530만명으로 전체인구대비 91.3%의 보급률을 기록, OECD 평균치인 87.4%(2004년 보고서 기준)를 다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년도 37.7%에서 40.7%로 향상됐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가 생산·공급한 수돗물 총량은 57억 5,300만 m³이며, 이중 수도요금 부과된 양은 46억 1,300만 m³로서 유수율(80.2%)은 전년도에 비해 0.9% 향상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첨단 수도관 보수공법 개발



건설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첨단 수도관 보수공법인 '부단수 차단 장치

(Fluid-crossing gate)'를 개발, 본격 적용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 공법은 밸브를 잠그지 않고도 수도관 파손 부분 양쪽에 차단장치인 전개판을 직접 삽입해 짧은 구간만 물을 차단한 상태에서 단기간 내 보수작업이 가능하다. 관경 크기에 관계없이 어느 수도관에나 적용할 수 있고 단수작업구간을 2~5m 이내로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시공이 간단헌데다 비용도 경제적이다. 이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완료에 이어, 현재 세계 140여 개국에 특허를 출원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 최초로 ISO/IEC 20000 획득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로 IT서비스 관리 분야 국제표준이자 인증규격인 ISO/IEC 20000을 획득하고, 로이드인증원(LRQA) Simon Batters 동북아시아 부사장으로 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ISO/IEC 20000은 고객만족을 위해 IT서비스 제공자가 추진해야 하는 업무활동 영역을 정의한 표준규격이자,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번 인증으로 IT분야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은 물론, 선진 각국과의 FTA 체결 및 물산업 육성정책 등 환경변화에 대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독섬에 수도박물관 조성



서울특별시 수도사업본부는 성수동 독도아리수정수센터 옆에 수도박물관을 건립

할 계획이다. 대지 1만 7,904m², 연면적 1,370m² 규모의 3개 동으로 지어지는 수도박물관에는 상수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홍보관과 자료관, 야외전시장 등이 들어선다.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시작해 올해 3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수도박물관을 건립, 시민들의 물 체험과 과학실험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의 소화가스로 차량연료화사업 추진



개발, 실용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

서울특별시는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결했다. 메탄 65%, 이산화탄소 30%로 구성된 소화가스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만 하루 8만 6,000m³가량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의 Flotech사와 국내 협력회사인 토탈이엔에스는 앞으로 서남물재생센터에 34억원을 투자해 소화가스 7,000m³(1일)로 정제 바이오가스 4,200m³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차량 연료나, 도시가스 등에 판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연료로 활용할 바이오가스는 일반화석 연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라며 "대기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인천광역시 수도사업본부는 1월부터 누수신고보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종전 300m/m 이상의 수도관 누수신고자에게 2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모든 상수도관의 누수신고자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급액도 지상의 누수현장을 신고하면 3만원, 지하의 누수현장을 신고하면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해 누수신고에 대한 관심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구정소식지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누수신고에 대한 시민의식이 정착된다면 인천광역시의 누수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

2011년까지 하천 수질 개선



대전광역시의 3대 하천이 오는 2011년까지 물놀이 가능한 수질로 개선될 전망이

다. 시는 생태복원사업과 함께 현재 수질오염농도(BOD 기준)를 오는 2011년까지 2~3ppm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건전화된 대전천에 유지용수 확보사업을 완공하고 수심 10~30cm를 유지하는 한편, 이미 추진 중인 1·2·3단계 하수처리장 외에 4단계 처리장을 세울 예정이다. 또 수질악화에 대비한 약품 주

입설비, 수질 자동감시장치를 추가 도입하고 관내 2,559km의 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하수 관리·운영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

온산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울산광역시는 지난 12월 14일 울주군에 위치한 온산하수처리장 내에 200k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했다. 15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련한 태양광발전시설은 앞으로 온산하수처리장의 연간 전기 사용량의 3.7%에 해당하는 29만 2,000kWh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연간 전기료 절감액은 1억 9,700만원(상업용 기준), 연간 이산화탄소 절감량은 140톤이다. 혐오시설로 여기는 하수처리장에서 환경친화적인 청정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온산하수처리장에 이어 회야정수장, 천상정수장 등에도 3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공과 팔당수질개선사업 공동 추진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하수처리 관련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협약은 팔당유역 7개 시·군에 417억원의 예산을 선투자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양평·여주·가평 등 3개 시·군에 민간투자방식으로 40억원을 투자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세부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하수통합관리시스템 89개소 구축에 8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팔당유역 하수도보급률 90%를 달성, 팔당호 수질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금강환경대상 수상



지난해 12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사가 공동주최한 '제4회 금강환경대상'

에서 충청남도 수질관리과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수질총량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물 통합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5월 3일 '물 통합관리본부'를 발족시켜 농림수산국 4과, 복지환경국 2과, 건설교통국 1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3과에서 각각 추진하던 물 관리업무를 통합시킨 바 있다. 또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해 워크숍을 여는 등 수질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광천수 개발 타당성 조사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적인 천연 광천수와 고기능성 음료 개발의 타당성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우선 서귀포시 중문동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지역에 대한 지하수 기초조사를 위해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삼다수의 국내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148억원을 투자, 연간 7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물산업 육성팀을 신설하는 한편, 물산업 육성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 가이드라인 설정, 지역맥주사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반영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화도정수장 취수구 개선공사 완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정수장이 취수구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12월 10일 준공했다.

화도정수장은 2006년 여름 집중호우로 취수구가 막히는 피해를 입는 등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차질을 초래해 남양주시가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하루 5만 5,000여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화도정수장의 취수구 개선으로 호평동, 화도읍, 조안면 지역 주민 10만 명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포시

풍무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



경기도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오는 5월까지 풍무지구의 합류

식 하수관을 우·오수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악취를 낮추고 침수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하수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공사구간은 총 2.27km이며, 오수관은 차도에 신설하고 기존 합류식관은 우수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정비사업에서는 풍무동 150여 가구에 악취방지용 오수받이를 설치하는 가정배수관 연결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 전량을 김포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돼 하천 수질개선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민방위 급수시설 '쉼터형 급수'로 개선



경기도 안산시는 전시 대비용 비상급수시설을 주변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쉼터' 형태의 비상급수 시설로 개선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단원구 외동주민센터 옆 비상급수 시설을 예전 '수도꼭지형'에서 주변 환경에 맞게 바뀌

틈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자연친화적 '쉼터형' 으로 바꿨다. 특히 급수시설 주변에는 물을 뜨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고 여름철에는 발을 담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0여 개소를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자연생태복원 지정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공원이 환경부가 선정하는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지정됐다.

시는 수질개선사업으로 장자호수공원의 수면 생태계를 복원한 결과, 올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우수마을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우수하게 복원한 마을을 발굴하고 홍보해 국민들의 자연보전 의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환경부가 지난 2001년부터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용인시

수질오염총량제 적극 추진

경기도 용인시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2월 29일 공개된 용인시 수질오염총량제계획안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백암면, 동부동,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전지역, 원삼면 가재울리, 두창리, 맵리, 미평리, 사암리, 좌항리 등 1읍 4면 4동 303㎢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계획기간은 오는 2011년까지다.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을 만족시키는 기준배출부하량은 7,725.4kg BOD/일로 2006년 9,498.1kg BOD/일보다 줄어야 한다. 시는 2010년까지 모현, 백암 등 하수종말처리장 8군데를 신설하고 관거 정비, 방류수 수질강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증설, 자체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배출량을 삭감할 계획이다.

양평군

'물 맑은 양평수' 공급



경기도 양평군이 수도물 '물 맑은 양평수' 페트병을 생산하며 불신해소에 적극 나섰다.

그동안 양평군의 수도물은 과학적인 정수처리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생산된 안전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신으로 음용비율이 낮았다. 이에 군은 양평정수장에 1억 1,000만원을 투입해 연간 4만병(350ml)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수질검사(55개 항목)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12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돌입했다. 군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및 회의, 정수장 방문, 특정지역 단수 또는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급수용으로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횡성군

마을상수도 관리인 교육

강원도 횡성군은 지난 12월 13일 지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마을상수도 관리인 29명과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 39명, 읍·면 마을상수도 담당자 9명 등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확한 수처리제 및 염소소독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 마을상수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향후 마을상수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옥천군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도입



충청북도 옥천군 상수도사업소는 1월부터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원격검침기를 부착해 외부에서 PDA로 편리하게 검침할 수 있는 지능형 검침 체

계로서, 최근 독신세대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상수도계량기 방문검침이 곤란한 점과 지하, 화장실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계량기 검침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줄 전망이다. 군은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 내 7,268개소의 계량기 중 가장 취약한 곳 290개소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1일 검침량이 현재 하루 평균 70~90개소에서 최대 300개소까지 가능해 최대 1개소당 계량기 이설 공사비가 50만원가량 절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은군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충청북도 보은군이 마을상수도 네트워크 통합관리 시스템을 확대한다. 군은 지난해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결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10개소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마을상수도의 물탱크 제어장치에 의해 수위레벨, 약품레벨, 배터리 상태, 관정의 상태, 이상발생 유무, 수중모터 운전상태 등이 음성과 문자, 그래프 등으로 실시간 전달되고, 네트워크로 마을 이장과 군청 담당자에게 제공된다.

충주시

홍보용 수도물 '달래수' 생산

충청북도 충주시는 4월부터 홍보용 페트병 수도물 '달래수'를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충주시 물관리사업소 단월정수장에 77㎡ 규모의 생산시설을 만들고 홍보용(350ml)과 재단·가뭇대책용(1.8l) 등 2종을 시간당 500병씩 생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달래수가 대외적인 청정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올해 보조지하수 관측망 4개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1월 말까지 오염된 지하수 관정이 많은 지역과 음용지하수 양이 많은 지역 등을 대상

으로 설치 후보지를 조사하고, 오는 6월께 공사를 시작해 10월에 완공할 방침이다.

보령시

맑은 물 지킴이' 모니터 운영



충청남도 보령시는 올해 3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상수도사업을 평가하는 '맑은 물 지킴이 모니터' 제도를 운영해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2월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모니터들은 수용가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거주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의 명에 감독관으로도 위촉된다. 또 각종 수도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 참여해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수질검사에도 참여해 검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시는 모니터 요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에게 상수도 관련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주시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



충청남도 공주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5월부터 9월 까지 전국 18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 경영성과 평가'에서 하수도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는 20만명 이하 시·군 단위 가운데 경상북도 상주시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책임경영 및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공주시는 하수행정에 대한 관리자의 높은 관심도와 높은 요금 징수율, 하수처리장의 적정운영, 하수처리수의 재활용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주시

한옥마을에 인공도랑 생긴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친수공간 확보와 관광객 볼거리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심형 도랑 설치사업이 오는 3월에 완공된다. 현재 한옥마을 부근 은행로에는 도랑 설치공사가 한창인데, 총 연장 980m 가운데 557m를 폭 0.3~1.2m의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로 연출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경 지하암반 관정 2공을 개발해 1일 300톤의 수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도랑의 평균 수심은 10cm 내외로 총 지하수 이용수량은 30톤 정도로 추정된다. 시는 도랑이 완공되면 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마을에 위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정읍시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 청사진 완료

전라북도 정읍시가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용역으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 10일까지 4,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계획을 추진해 왔다. 정읍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에는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관리, 상하수도 등 10개 분야 58개 사업이 제시돼 있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총 2,800억 6,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질환경 분야에는 정읍천 자연형 하천 가꾸기 사업, 빗물을 이용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비점오염원 관리 등 7개 사업에 680억 7만원을 투입한다.

향 후 행 사 안 내

2008년 물의 날 기념 물 관리 심포지엄

- 세부주제 : 지속가능한 물,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의 효율화 방안
- 분야 : 상하수도, 지하수, 빗물, 하천, 심층수, 물 산업 전반
- 참가대상 : 지자체 물 관련 담당 공무원, 학계, 학회 및 관련단체, 학생, 일반인, 환경 관련 업체
- 날짜 : 2008년 2월 27일(수)~29일(금)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참가비용 : 1인당 5만원(세미나 책자, 기념품, 현장 탐방, 28일 중식)
- 주관 : 환경타임즈 · 환경방송, 환경산업정보
- 주최 : 환경타임즈, 국회환경포럼
- 문의 : 02-2281-4114, 011-9997-5074
- ※ 행사와 관련한 수익금의 일부는 태안지역 복구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전국 상하수도인이면
누구나 보는 협회지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소식을 담아보세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세요?

보도자료(사진자료 포함)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소식을 소중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홍보팀 신재택 팀장, 공석진 대리
Email : myakong@kwwa.or.kr
Tel : 02-3156-7733